장성 나노·레이저산업 일번지 만든다

지원센터 개소 … 국비지원 2015년까지 290억 투자

반도체·LCD 등에 첨단기술 접목 고부가가치 창출

장성군이 역점사업으로 레이저시스템 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첨단 나노·레이저산업의 일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장성군은 5일 김양수 장성군수, 김상복 군의장을 비롯해 김동현 전남도 경제산업국장, 홍종의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현관에서 레이저시스템 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군은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사무실 개소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해 센터 건립에 따른 인허가, 기업유치 상담 및 알선 등 행정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가공기술은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전자산업 분야 등에 첨단 레이저 가공기술을 접목해 정밀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전자산업의 핵심 가공기술인 레이저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을 전남도와 군의회 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유치했다.

이에 군은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290억원(국비 250억·지방비 40억원)을 투자해 장성 나노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군은 센터가 설립되면 이미 구축된 나노 바이오연구센터의 나노기술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인근 광주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관계를 유지로 기업유치 등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소재, 바이오, 전기자동차, 우주항공 분야로 확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레이저산업의 호남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새얼굴

교통사고 줄이기 등 대민서비스

조상현 장흥경찰서장

"신뢰와 친절한 대민 서비스로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일 취임한 조상현(49) 장흥 경찰서장은 "농촌지역의 도로망 취약성을 감안, 최대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와 절도사범 예방 등 민생치안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 서장은 최근 빚어진 검·경 수사조정권과 관련, "경찰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조서장은 경찰대학(1기)을 졸업했으며 경남경찰청 산청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취미는 테니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천문대 관광명소 정착

장흥군 장흥읍 억불산에 위치한 '정남진 천문과학관'에 관람객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천문대로 문을 연 이후 유료 관람객이 지난해에만 3만명을 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학교' 개교

국립 나주병원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 치료받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례 등을 막기 위한 병원학교인 '느티나무 학교'를 7일 개교한다.

정신재활센터 4층에 마련된 병원학교는 지난 3월부터 실질적 운영을 해왔으며 그동안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개교식을 한다.

나주 남평중학교 특수학급으로 소속될 이 병원학교(1학급)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입원과 결석이 불가피한 중학생이 대상이다.

그동안 이 병원에는 연인원 20여명의 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 장기결석에 따른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등이 불가피했다.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느티나무학교에서 인터넷 화상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지속하며 연령, 학업 수준 등에 맞는 개별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병실과 별도로 마련된 3개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요리시설, 체력단련실 등도 마련했다.

남평중은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해 학생교육과 지도를 맡고 있다.

병원 측도 전문의사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등 병원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병원학교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교육청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 받은 다음 남평중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면 된다.

국립나주병원 관계자는 "현재 6명의 학생이 치료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10여명의 학생이 느티나무에서 학업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민선 5기 1년 임성훈 나주시장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념"

특화산단 41개업체 유치

혁신도시에 국제고 신설

부정부패 근절 강구해야

임성훈 나주시장의 민선 5기 1년은 '기업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한 한해였다.

신도산단과 미래산단, 노안·남평 농공단지 등 4개소의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과정에 4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향후 7223억여원이 투자되는 등 고용예정 인원만 3308명에 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임 시장의 선거공약인 일자리 1만개 창출이 임기내 실현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민선 5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운영, 임시장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의 행보를 엿볼 수 있다.

임 시장은 '벤처기업 CEO' 출신답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등 민선 5기 1년은 "희망 나주 만들기의 토대를 굳건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장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영산포 선창을 재개발해 홍어를 비롯한 '식도락 거리'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산강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의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읍성 권역내 테마형 한옥촌을 조성하는 등 옛 담장길 을 복원하고 곰탕 등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도심재생의 기본방향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또 임 시장은 오는 9월께 한전 신사옥 건립공사가 착공되면 혁신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공립 국제고 신설'과 '특성화 병원 유치' 및 '명품 프리미엄 쇼핑센터 유치' 등 혁신도시 내 다양한 정주여건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역경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도 임시장은 고민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정의 중심을 생산, 가공·유통, 판매의 계열화를 추진하는 등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 시설원예 지원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으로 농업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 어매니티(A-menity) 실현을 통해 고소득창출의 농촌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밖에 나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연염색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염색식물인 쪽을 대대적으로 재배, 농가소득 보전 및 체험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장이 의욕적인 시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임 시장의 지역사랑 열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통부재에 따른 대화가 단절돼 반목과 갈등이 만연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정칠현기자

전 북

새만금 관광객 1000만명

하루평균 2만3000명 방문

지난해 4월 새만금 방조제 도로개통 이후 새만금을 방문한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는 하루 평균 2만3000여 명이 방문, 개방 435일째인 5일 1000만 관광객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부안통제소에서 군산통제소를 통과한 차량 98만여 대, 군산통제소에서 부안통제소를 통과한 차량 122만여대 등 새만금방조제를 찾은 차량은 총 220만대에 달했다.

그동안 새만금방조제는 스포츠 및 문화행사의 장소로 각광을 받아 국제마라톤대회, 자전거 축전, 인라인마라톤 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행사 및 문화행사가 열렸다. 지난 6월부터는 방조제내 아리울 아트홀에서 상설공연을 시작해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신시도와 야미도를 잇는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 부지중 일부를 임시개장해 오토 캠핑장, 4륜 오토바이(ATV) 체험장을 설치하고, 요트·수상스키· 패러 세일링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새만금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신시도 휴게 시설 부지에는 편의점, 푸드 코트 등이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또닥또닥 다듬이 공연 완주군 '7학년 8반' 할머니들이 최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2011 성북구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색적인 다듬이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백의 연꽃' 김제 청운사로 오세요

9일부터 하소백련축제

"순백의 연꽃과 산사의 고즈넉함이 어우러진 청운사로 오세요."

국내 최대의 백련 서식지(13만㎡)인 김제시 청하면 청운사에서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10회 하소백련 축제'가 열린다.

청운사 백련꽃은 '새우가 알을 품은 모양'의 연못에 흔치 않은 청백색까지 띠며 자연과 여유를 즐기려는 관광객을 붙잡는다.

'연인동화'(蓮人同和= 사람과 연꽃이 함께 어우러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독특한 향을 자랑하는 백련으로 만든 차와 된장, 칼국수, 죽, 두부, 동동주를 맛볼 수 있으며 천연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백련을 주제로 한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되고 대금, 가야금 산조, 풍물놀이 등의 국악공연과 시화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인근 청하초등학교에서는 세계 종교음식을 주제로 한 '제 1회 세계음식(종교)축제'가 열린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전북에 세계 최고 연구소 유치

美 국가 핵안보국 소속 로스알라모스硏

전북대와 친환경 복합소재 공동 연구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복합소재의 구조건전성 분야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소를 전북대에 설립한다.

전북도는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와 함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복합소재의 구조건전성(Structural Health) 관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이달 하순 전북대에 설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정부의 '외국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선정돼 교과부와 전북대, 알라모스, 전북도는 6년간 총 114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지역의 첫 해외연구소인 이 공동 연구소는 복합재 구조물의 결함 여부를 실시간 탐지하는 '복합재 구조건전성 관리 및 신뢰성 평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해 전북대와 알라모스 연구소를 오가는 교육과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1943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는 미국 국가 핵안보국 소속으로 연간 2조6000억 원의 예산과 9천명의 직원이 복합소재를 이용한 항공이나 풍력, 원전, 바이오 분야 시설 등의 안전을 연구하고 탐지해 해결하고 있다.

전북도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은 "국제 공동연구소 설립이 복합재 기반의 항공 · 풍력산업 발전을 촉진해 전북도의 탄소 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읍 '방사선 연구센터' 기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일 정읍 방사선과학 연구소에서 '방사선육종 연구센터' 기공식을 갖는다.

오는 2013년까지 132억원이 투입되는 방사선육종연구센터가 완공되면 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및 전략식물에 대한 돌연변이 신품종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현재 세계 25위권인 방사선 육종 연구수준을 8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방사선 육종연구 수준을 20품목 120품종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뉴스 브리핑

전북 산림 면적 줄어도 목재량 매년 증가

전북도의 산림 면적은 줄었으나 목재량은 급증해 산림이 울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도내 산림의 평균 '임목축적'은 ha당 129.9㎥로 10년 전(58.8㎥)보다 2배가 늘었다.

이는 치산 녹화가 시작된 1973년 3.02㎥와 비교하면 42배가 증가한 것이며 전국 평균(125.6㎥)보다도 1%가량 높고 OECD 국가들의 평균(118.3㎥)을 웃돈다.

도내 산림면적은 44만 6516ha로 1973년 46만 765ha에 비해 3.1% 줄었다. 이는 농지나 도로, 대지 등으로 산지가 전용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청 조정팀 k-water선수권 종합우승

군산시청 조정 선수단이 최근 강원도 춘천, 의암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9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여대 및 일반부 부문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군산시청은 김영래, 임은주, 이선희, 이윤희 선수가 출전한 '쿼드러플 스컬'과 이윤희와 이선희 선수가 출전한 '더블 스컬', 임은주 선수가 출전한 '싱글 스컬' 부문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군산시 조정팀은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 한우' 전주 판매점 열어

김제시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지평선 한우' 전주점을 열었다.

'지평선 한우' 전주점은 동시에 120명이 시식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정육을 판매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한우산업 특구'로 지정된 김제시는 현재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 176농가에서 1만4000여두의 브랜드 사육기반을 갖추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 '삼삼장류' 정부 식품기술개발 사업 선정

순창군의 '삼삼장류 프로젝트'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삼삼장류 프로젝트'는 전통 장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금 함량을 단계적으로 3%를 낮춰 소비자들에게 저염화 장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장류메카 순창에서 저염화 장류를 만든다면 전통장류 시장확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